

연중 제II주일

기도서	370 면(B해)
제1독서: 에 제	17, 22-24
제2독서: 2고린	5, 6-10
복음: 마르	4, 26-34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하느님 나라는...겨자씨 한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란다.
(마르 4, 31~32a).

□ 강론



나를 누라 부릅디까?

김 환 철 신부

「사람들이 나를 누라 부릅디까?」
 「어떤 사람은 아저씨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혹은 신부님이라 부릅디다.」
 「주님! 주님은 저를 누라 생각하십니까?」
 「너는 내가 네 안에 살아있는 성전이라 하지 않았더냐?(고전 3:16) 나는 너를 물과 성령으로 축성하였으며 네가 바로 나야」(마태 25:45).
 「주님!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마태 16:16).

우리는 보통사람들과 함께 사는 보통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하느님의 유산(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임을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주셨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그러나 가장 불쌍한 이유는 단 한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화(은총)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불쌍하다 하지 않으리요. “너희는 진주를 캐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돌아서서 그것을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마태 7:5)고 하신 말씀은 곧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기쁨, 풍요로운 행복을 고봉으로 받았습니니다. 이 순간에도 기쁨에 겨워 어쩔줄을 몰라할 때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처지가 불쌍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우 형제 여러분!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점점 자라면 탐스런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성령의 세찬 바람으로 가득 채워 한쪽 가지에는 사랑의 빨간 열매를, 다른 한쪽 가지에는 평화의 파란 열매를 맺게 하여 온 누리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오늘의 주님 역을 다 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교구 총대리)



국회의원 사포내야 되겠군.

—새마을 성역 시비

“새마을도 성역(聖域)이나, 국회의원 사포내야 되겠군”.—두 시간이 넘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측을 기다리다가 지친 한 야당원의 푸념이다. 그래도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인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아니,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받는 대접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 관련되는 신문기사들을 소개해 본다.

국회 내무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여·야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출석문제로 논란을 빚다가 11일 오전 회의에서 전경환 회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벌이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측은 아예 직원 한 명조차 모습을 내밀지 않고, 민정당 의원들은 오후로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오전으로 당겨 열기로 했다는 이유로 불참. 이에 신민당 의원들의 불만은 견잡을 수 없이 터져나와—국회의원은 기다리고 새마을본부 간부들은 얼굴도 볼 수 없으니...,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을 불러 답변서에 앉으라고 해라/신경질나서 못살겠다, 용서할 수 없다/새마을정신이 있다면 회의에는 참석해야 할 것이 아니냐/민정당은 왜 새마을본부에 끌려다녀야 하나—등등으로...(이상 6월 12일자 조선일보 3면 聞外聞에서 옮김)

그런데 같은 시기에 동아일보는 1면 기사로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다. (6월 11일자)—정부는 새마을 성금으로 마련되는 새마을기금을 88년까지 5백억원을 조성, 새마을 조직의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11일 발표한 금년도 행정백서에서 밝혔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231개 지회의 운영강화, 자연보호협의회 사회정화위원회 등 여타 국민조직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민간주도 추진 체제 강화, 중앙본부를 통한 부처별 재정적 지원 창구의 일원화... 역시 새마을은 성역인가!

숨 정 이 산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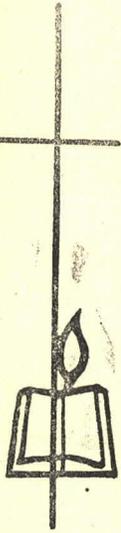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나의 피다. 마르 14:24

「잔을 든다」는 말은 예수가 성부의 뜻에 따른 고통과 슬픔의 「잔」을 든다는 것을 말한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벌려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마태 26:39).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잔을 들렸다」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놓고 예수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는 하느님 「은혜」의 소산인 것이다. 여기에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다.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고전 11:25). 「계약의 피」, 이것은 모세가 시나이에서 「계약의 서(書)」(출애 20:22~23:19)를 작성해 놓고, 이것을 굳히기 위해서 제단에 피를 뿌렸던 것인데(출애 24:8), 복음과 서간은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들려가며 마셨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죽음에로의 참여를 말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며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필립 3:10).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한다」(마르 10:39). 「죽는 것」은 생명을 배태한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고후 4:10).

「최후만찬」은 새 계약의 「표지」인데, 우리는 이것을 재현시키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는 가르치는 자, 모범자가 아니고 제물로 바친 자라는 것이다. 「이는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릴 피이니라」.



청소년 특집 ②

*** 내가 만난 청소년들 ***

—교사의 입장에서—

요즘 “청소년”하면 발달하고 패기에 찬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눅이 들어 어깨축지가 축 처져 있는 축은한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그들은 새벽녘부터 밤 늦게까지 교실에 갇혀 있어야 하고 좋은 싫든 원하던 원하지 않든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더러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저임금의 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년들도 상당수가 있다. 그들 청소년들은 모두 사사건건 어른들의 가까운 감시의 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언제나 쫓기는 자의 불안과 초조가 서려 있으며, 그들의 착하고 단정해 보이는 심성과 행실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간섭을 덜 받고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많다. 적어도 고등학교 교사로 다녔던 일흔의 나의 눈에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누가 그들에게서 웃음을 빼앗아 버렸는가? 누가 그들의 희망과 용기와 패기를 꺾어버렸는가? 그야 물론 어른들이다. 인간의 존재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이, 그리고 경쟁과 출세의 수단만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우리의 교육이, 그리고 육십많은 저들의 부모들이, 뿐만 아니라 나라 장래에 무관심한 모든 어른들이 그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간 것이다. 내 눈에 청소년들은 축은하고 안스럽게만 보인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의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

어야 한다. 그들에게 사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며, 많은 문제에 부딪혀 보고 그것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른들은 그들에 대한 참된 애정과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봐 주어야 한다. 그래서 어른들의 손가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타율적인 청소년을 모범생으로 추켜세우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만나본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착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순수했고 다정다감했다. 그들은 의로웠으며 남을 속일 줄을 몰랐다. 어른들 중에 누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만 할까? 그들은 아직 어리기에 실수할 수 있고 그들은 아직 미숙하기에 언행이 거칠 수 있다. 때로는 난폭하여 세상을 놀라게도 하나 그들이 모두 우리 어른들의 자녀요, 형제자매들임을 인식한다면 또 그들의 난폭성이 우리 어른들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고 어른들로부터 배운 것임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어른들은 성인이며, 저들은 아직 어리다는 것, 그리고 저들과 우리 어른들은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임무는 모든 어른들에게 주어질 것이나,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 교회에게 더 많이 주어짐을 자각하고 청소년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심여고 교사 김 낙완)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 여러 분에게 열가봉사

제일안경원
전주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동 앞)
2-0102·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안나

- 혼수(회갑)웃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먼지

도매상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비디오 촬영 전문
최신형 전자비디오 촬영기 설치
결혼·회갑·각종행사 등 혼수품, 전자제품, 열가 판매 금성·삼성·대우

백운전자
☎ 3-0231
백정수(리노)·이테레사
중앙시장 입구(시민약국 앞)

학생용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 앞)
원장: 김 테레사(금순)
☎ ④ 9206·⑤ 5289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복자 천주교회-23일 오전 공식미사 중, 주베-박정일 주교님
- 1. 하나회 모임: 6월 16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사회복지 회관
- 2. 남자 성소자 모임(고·대·일반): 일시-6월 16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타
- 3. 6월중 교미씨움회의 개최: 일시-6월 16일 오후 2시, 장소-전동 천주교회
참가대상-각 꾸리아 간부 및 직속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 4. 특강-레크레이션의 이론과 실제: 일시-6월 29일~30일, 문의-교구청 교육국
- 5. 특강! 교육학: 초·중·고 교리교사 및 지도자들에게는 학생들의 올바른 지도방법을,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바람직한 육아방법을 제시할 교육학 특강을 개최함
일시-7월 6일(토) 오후 2시~6시, 7월 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가톨릭 센타 강당, 강의내용-교육학 개론·교육심리학
강사-김형호·박진현 교수
- 6. 주일학교 하계 교리교재 판매: (학년별 교재) 6월 2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1권당 200원, 신청은 교구청 홍보국으로
- 7. 중·고 지도자 보수교육: 6월 29일~30일, 장소-가톨릭센타(29일 13시 접수)
내용-①레크레이션 이론과 실제 ②캠프 이론 및 응급조치법, 회비-8천원
- 8. 시민강좌: 일시-6월 24일 오후 8시, 제목-민주와 통일
강사-문익환 목사, 장소-군산 오룡동 천주교회
- 9. 평신도 협의회 대체구좌 개설: 400010-31-9033572
- 10. 오룡동 천주교회 수녀원 전화 가설: 63-2002
- 11. 교리교사 하계수련회: 7월 1일~3일, 장소-상관천주교회

전주교구 재경 성소후원회 6월분 100만원 봉헌
성소후원회 회원: 이현승(요셉)·임정태(테레사) 부부
이루갈다 동정부부 기념관 건립-100만원 봉헌. 감사합니다

※ 축 영명! 성 알로이시오(21일): 이태주 신부님 축하합니다
※ 성바로 서원-문 열었습니다

✿ 잠깐!

너무 빠르다.
신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을 바라는 알략한 마음에서 잠시 불길처럼 치솟곤 하는 감정도 아니다. 큰 일이 생겼을 때만 허겁지겁 매달리는 것도 아니다.
정신 못차릴 정도로 모든 것이 빨라진 요즘 세상이지만, 모처럼의 하느님 앞에서만은 그렇게 서두는 마음이 차분해져야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의식도 없이 기계적으로 급하게 외워버리는 우리들의 기도습성, 특히 미사중에 사제의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 급하다.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가? 우리 한번쯤 생각해 보자.
기도란, 하느님 앞에 잠시 고요한 마음으로 머무는 것일진데.....

요십이 (619) 김병오



영지·영지·영지!

- 최고의 건강식품 '불노초' 영지버섯
- * 직접 생산하여 저렴하게 보급합니다.
 - * 재배방법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합니다.
 - * 연락 주시면 안내서 보내 드립니다.

월성 영지 농장

최택승(날시스)
강영순(제노베파)
이리 ☎4773 · 08953
이리시 월성동 403
(성글라라 봉쇄수녀원 앞)

※ 전복의료협동조합지정병원

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비뇨기과
원장전문: **최복기** (투가)
부설: 임상병리검사실
임상병리사 임윤자(글라라)
☎ 1719, 0616 (상담전화)
(구역전오거리·골목로 동편 2층)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렌타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주. 윤베드로

O.A(사무자동화) 기기 전문 판매
(주) 신도리코 } 전주 특약점
신도사무기(주)

신도 O·A 상사

장 병 갑(프란치스코)
☎ 2-3678·6-9666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용태
사무실 2-7032 보좌신부 김의철
수녀원 " 사도회장 이홍재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반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낙균
유치원 2-2276

- 축! 어린이 영세 및 첫 영성체
영세자-32명, 첫 영성체자-31명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영세자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5월 26일에 영세하신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전자출간 기금 신입합시다: 오늘부터 30일까지
1구좌라도 좋습니다, 빠짐없이 신입합시다
김가타리나씨-20구좌, 문요안나씨-1구좌, 김크리스티나-1구좌, 인후아파트 3구역-2구좌, 송갑순-1구좌 감사합니다
 - 모내기 봉사활동: 오늘금상리(교회도지 앞)에서
공식미사 후에 참가해도 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모니카회 월례회: 22일 오후 2시
 - 신축기금 납부합시다: 우리의 새 성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합시다
 - 공소 순회미사: 22일 저녁 8시, 왕정리공소
 - 금주의 전례담당: 제3조, 차주는 제4조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437,570원 교무금: 267,000원
지난주 신축금: 285,000원

-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울뜨레야: 20일 오후 8시
※ 꾸르실로 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 신학생 후원금 신입: 정만성, 천사의 모후pr-각1구좌(누계-73구좌) 이것으로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일학교: 교리와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관심 바라며 어린이 자가 교과서를 준비하도록 부모님들의 후원 바랍니다
교리-토요일 오후 3시, 미사-4시
교과서대금-200원
 - 중·고생 미사: 토요일 오후 7시로 변경했습니다
중·고생들은 한 학생도 빠짐없이 토요일 미사참례 합시다
 - 영세사진: 사진대금 더 내실분들은 준비하여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 차주전례: 해설-김배근·고정수
독서-①박경환 ②박종순, 기도-천사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일반-297,540원
주일학교-3,720원 중·고-10,000원
계-311,260원 교무금: 226,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영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성원
수녀원 " "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기문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병오

- 견진성사: 23일 공식미사 박정일 주교님
견진교리 17일~22일, 낮반-오전10시~김수녀님
저녁반-8시 신부님
 -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 8시, 새벽미사-5시
 - 반회합: 20일 저녁 8시(저녁미사 없음)
중2반-김수녀님(장세시리아)
교1·2반-신부님, 2·3반-이수녀님
 - 숲정이 주보를 한가정에 한장씩만 가져가세요
 - 가정방문: 18일, 5월 25일 영세하신분들
 - 감사..이갑진씨 회갑미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금주 성당청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
토-순결하신 어머니
차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탑, 토-셋별
 -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신영희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장기연 ②김운자
- 지난주 봉헌금: 191,741원 교무금: 501,650원

- 성화회: 공식미사 후
 - 피미시움: 오늘 오후 2시
 - 성마리아 뿌리아: 다음주 오후 2시
 - 2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합시다
박순자-3백만원, 김묘생-5만원, 방미정-2천원
감사합니다
 - 첫 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5시~6시
 -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여숙, 독서-①김동연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배한수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최홍만 ②최원일
- 지난주 봉헌금: 872,390원 교무금: 795,50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영신
사무실 " 사도회장 이정우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중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교성
수녀원 2-4804

- 전주교구 사제 친목회: 어우리 저수지에서 개최하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6월 29일
 - 치과진료 다음주일에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6,870원 교무금: 35,000원

- 예비신자 모집(6월 한달): 입교식-30일
 - 미사중 기증: 84년 8월 영세자 일동
※ 잔액은 교육관 신축기금 봉헌
 - 주부 성서대학: 수요일 오전 10시
이사야 42장~66장
 - 중·고생 예비자 교리: 주일 오후 5시
 - 모임: 성모회·울뜨레야-오늘, 자모회-다음주
 - 글라리회 단합대회
18일 오전 10시까지 신축 신용조합 앞 집결
- 지난주 봉헌금: 466,810원 교무금: 337,000원
건축현금: 430,000원